

생선 소비와 연령의 관계에 미치는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매개효과 평가

강종현^{1*} · 고범석²

¹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²대구보건대학 호텔조리음료계열

Measuring the Mediated Effects of Attitude toward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h Consumption and Age

Jong-Heon Kang^{1*}, Beom-Seok Ko²

¹Dept. of Cooking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Hotel Culinary Arts & Wine · Coffee,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h consumption and age. A total of 23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s.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 for the data also indicated excellent model fit. The effects of age on involvement and conven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s of age on attitude and consump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the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and consumption. The attitude and conveni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ption. The effect of involvement on conven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attitude, involvement and convenience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and age. The involvement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and age. The involvement played no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and age. The attitude and convenience played no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and involvement.

Key Words : Fish consumption, attitude, health involvement, conven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1. 서 론

생선 소비가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음식 소비패턴, 소비자들의 개인 건강상태, 그리고 많은 태도적 차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Trondsen 등 2003), 육식이 많은 여러 유럽 국가들에선 일주일에 두 번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나(Verbeke 등 2007), 실제 생선 섭취량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음식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연령이 음식 인지도나 태도(Rappoport 등 1993), 또는 음식 소비에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것을 제시한 연구들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가 건강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Hearty 등 2007)가 있었다. 해산물 소비에 관한 연구들(Gempesaw 등 1995; Myrland 등 2000; Olsen 2003)은 연령, 맛, 건강/영양

과 편의성 등의 요인들이 해산물 소비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들이라는 것을 입증했었다.

맛, 선호도, 건강과 편의성은 특정 식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연구들(Furst 등 1996; Olsen 2003)도 있었다.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생선 소비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Verbeke & Vackier 2005; Mahon 등 2006), 또는 태도, 과거행동과 습관이 해산물 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Honkanen 등 2005)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생선 및 해산물 소비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Leek 등 2000; Letarte 등 1997)과 소비자 몰입의 영향(Juhl & Poulsen 2000), 바닷가재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편의성의 영향(Kinnucan 등 1993)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Ajzen과 Fishbein은 자신들의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직업, 종교 등의 외생변수들은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와 의도 등의 인지변수들이나 태도변수들을 통해서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의했었다(Olsen 2003). 여기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기에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해산물 소비의 중요한 결정요인들로 소비상황, 구매 가능성, 지식과 편의성을 포함하고 있다(Olsen 2003). 그러나 본 연구는 해산물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연구한 Olsen(2003)의 접근방법과 같이 사회인구통계적 변수가 심리변수들과 행동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사회인구통계적 변수가 심리변수를 통하여 행동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변수로 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 등의 심리변수를 선정하고, 결과변수로 소비 빈도를 선정하고, 그리고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의 선행변수 또는 원인변수로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통계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이 생선소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 편의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령이 생선소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크기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받은 5명 대학생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자들이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250명에게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최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들은 250명이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35명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성별, 결혼여부, 직업과 소득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섭취태도, 건강몰입, 지각된 편의성, 생선 소비행동과 연령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다.

생선에 대해 호의적인 정도, 선호하는 정도, 만족하는 정도, 또는 맛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생선 섭취태도는 선행연구(Olsen 2003)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저녁식사로 먹는 생선류 음식의 맛이 좋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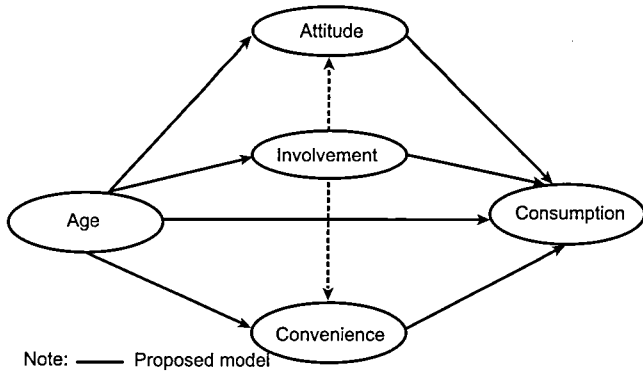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견해나 사항, 또는 건강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Gempesaw 등 2005; Olsen 2001; Olsen 2003) 건강몰입은 선행연구(Roininen 등 1999, Olsen 2003)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건강을 위해선 음식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선 건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것들(운동, 보양식 섭취 등)을 하고 있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생선을 구매하고 조리하여 먹고, 식후에 먹고 난 것을 치우는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한 정도를 의미하는(Furst 등 1996; Olsen 2003) 편의성은 Ajzen(1991)의 기대-가치 모형에서 사용되었던 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개발되어 선행연구(Olsen 2003)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여 '해산물류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난 후에 뒷정리,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로 인해 자주 요리해 먹지 못한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생선 음식 섭취 빈도를 의미하는 생선 소비는 선행연구(Olsen 2003)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저녁식사로 해산물로 음식을 먹은 횟수'는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3-6회, 1년에 1-2회, 그리고 전혀 먹지 않았다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지난 2주일(14일) 동안 집에서 저녁식사로 해산물류 음식을 먹은 횟수'는 14회 이상, 10-13회, 5-9회, 1-4회, 그리고 전혀 먹지 않았다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연령은 선행연구(Olsen 2003)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50세 이상, 40-49세, 30-39세, 그리고 20-29세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Olsen(2003) 연구의 제안모형을 참고하여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합시킨 <Figure 1>과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경로는 연령과 생선 섭취태도, 연령과 건강몰입, 연령과 편의성, 연령과 생선 소비, 생선 섭취태도와 생선 소비, 건강몰입과 생선 소비, 그리고 편의성과 생선 소비의 경로들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Olsen(2003) 연구에서 사용된 수정모형을 참고하여 건강몰입과 생선 섭취태도의 경로와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경로를 첨가한 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정모형을 개발한 목적은 Olsen(2003) 연구에서와 같이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하여 어떠한 모형이 더 우수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Figure 1> Research model.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빈도분석이 이용되었고,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평균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이 이용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선 소비,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 편의성, 연령 등의 구성개념들로 개발된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고, 확인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AMOS 4.0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총 235명이었고, 이 중에서 여성이 51.5%로 남성(48.5%)에 비해 더 많았다. 결혼여부에서 기혼자는 122명(51.9%)이었고, 독신자는 113명(48.1%)이었다. 연령에서 20대가 88명(37.4%)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았다. 직업에서 직장인은 107명(45.5%)으로 실업자(19.1%)나 학생들(32.3%)보다 더 많았다. 월소득에선 200만원 이하가 14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소득층에 비해 더 많았다(56.8%).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59명(25.1%),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가 23명(9.8%),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6명(2.6%),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4명(1.7%)이었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는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카이제곱의 값이 59.906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 적합지수(GFI), 비교 적합지수(CFI), 상대 비중심 지수(RNI)와 중

<Table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4	48.5
	Female	121	51.5
Married status	Married	122	51.9
	Single	113	48.1
Age (yrs)	20-29	88	37.4
	30-39	52	22.1
	40-49	45	19.1
	50-	50	21.3
Occupation	Employed	107	45.5
	Student	76	32.3
	Unemployed	45	19.1
	Others	7	3.0
Income (Monthly)	₩1,999,999 or less	143	60.9
	₩2,000,000 - ₩2,999,999	59	25.1
	₩3,000,000 - ₩3,999,999	23	9.8
	₩4,000,000 - ₩4,999,999	6	2.6
	₩5,000,000 or more	4	1.7
Total		235	100

<Table 2>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variables

Constructs and indicator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E	Sig.
Attitude			
Being wise	0.736	-	-
Feeling satisfied	0.811	0.100	0.000***
Pleasant feeling	0.876	0.099	0.000***
Taste good	0.781	0.090	0.000***
Involvement			
Importance of variation in diet	0.598	-	-
Importance of healthy food	0.731	0.159	0.000***
Involvement in healthy issues	0.611	0.170	0.000***
Involvement in healthy living	0.573	0.179	0.000***
Convenience			
Time to clean up and supplementary work	1.00	-	-

*** p<0.001

분 적합지수(TLI)의 추정치들은 각각 0.950, 0.963, 0.963, 0.947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곱근(RMSEA)은 0.072로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측정모형에서 개별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결과들은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생선 섭취태도와 4개 측정도구들 간 표준 요인적재량은 0.736부터 0.876까지로 나타났다. 건강몰입에 대한 태도와 4개 측정도구들 간 표준 요인적재량은 0.573부터 0.731까지로 나타났다. 지각된 편의성과 1개 측정도구 간 경로계수는 1.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구성개념들과 측정도구들 간 표준 요인적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Olsen 2003; Yuksel & Yuksel 2007).

<Table 3>에 의하면 생선 섭취태도의 평균은 3.288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선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몰입의 평균은 3.852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성의 평균은 2.86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주 생선음식을 요리해 먹지 못하는 것이 뒷정리나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Table 4>에 의하면 생선 섭취태도와 건강몰입의 상관관계 계수는 0.272로 나타났지만, 생선 섭취태도와 편의성의 상관관계 계수와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024와 0.030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 상관관계 계수들은 생선 섭취태도와 건강몰입의 평균분산 추출값 제공근들은 각각 0.803과 0.631로 상관관계 계수들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개념들의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Rai 등 2002; Olsen 2003). 생선 섭취태도와 건강몰입의 혼합신뢰도는 각각 0.878과 0.724로 기준(0.6)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개념들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Olsen 2003).

<Table 3> Mea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Mean(SD)	\sqrt{AVE}	Composite reliability
Attitude	3.288(0.789) ¹⁾	0.803	0.878
Involvement	3.852(0.663)	0.631	0.724
Convenience	2.860(1.144)	-	-

¹⁾ All items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anchored by 1=disagree strongly, 3=neither disagree or agree, 5=agree strongly.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ttitude	Involvement	Convenience
Attitude	1.000		
Involvement	0.272	1.000	
Convenience	0.024	0.030	-

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들은 <Table 5>에서 제시되었다.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은 카이제곱의 값이 각각 102.390과 91.502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안모형에서 기초 적합지수, 비교 적합지수, 상대 비중심 지수와 증분 적합지수의 추정치들은 각각 0.935, 0.942, 0.942, 0.922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공근(RMSEA)은 0.068로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정모형에서 기초 적합지수, 비교 적합지수, 상대 비중심 지수와 증분 적합지수의 추정치들은 각각 0.942, 0.952, 0.952, 0.932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공근(RMSEA)은 0.064로 기준

(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카이제곱의 값이 10.888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 적합지수,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공근, 비교 적합지수, 상대 비중심 지수와 증분 적합지수의 추정치들도 수정모형에서 더 좋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모형보다 수정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Table 5> Fit measures of research models

Fit measures	CFA model	Proposal model	Modified model	Model comparison
χ^2	56.906	102.390	91.502	10.888
Degree of freedom	25	49	47	2
Probability	0.000***	0.000***	0.000***	0.004**
GFI	0.950	0.935	0.942	0.007
RMSEA	0.072	0.068	0.064	-0.004
CFI	0.963	0.942	0.952	0.010
RNI	0.963	0.942	0.952	0.010
TLI	0.947	0.922	0.932	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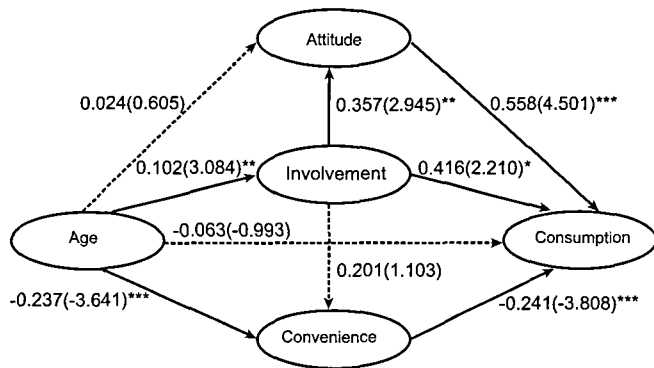
** p<0.01, *** p<0.001.

4. 구성개념들 간의 매개효과 분석

건강몰입과 생선 섭취태도의 경로와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경로가 존재하는 수정모형에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결과들은 <Figure 2>에서 제시되었다. 연령과 태도의 경로, 연령과 생선 소비의 경로, 그리고 건강몰입과 편의성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들 간 경로들에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경로들 중에서 건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의 경로계수는 0.102였고, t값은 3.084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Kearney 등 1998; Roininen 등 1999; Olsen 2003)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의 경로계수는 -0.237이었고, t값은 -3.641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뒷정리나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로 인해 생선 음식을 요리해 먹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생선 섭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357이었고, t값은 2.945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생선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선 섭취태도의 경로계수는 0.558이었고, t값은 4.501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생선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생선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몰입의 경로계수는 0.416이었고, t값은 2.210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생선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lsen(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성의 경로계수는 -0.241이었고, t값은 -3.808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뒷정리나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로 인해 생선 음식을 요리해 먹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생선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편의성이 음식 선택(Steptoe 등 1995), 바닷가재의 구매 의사결정(Kinnucan 등 1993)과 해산물 소비행동(Olsen 200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



* p<0.05. ** p<0.01, *** p<0.001. () t values.

<Figure 2> Effects and paths of mediated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age and fish consumption

5개 구성개념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의사효과와 공변량효과에 대해 분석한 <Table 6>에 의하면, 간접효과는 연령이 생선 섭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령이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령이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건강몰입이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발생하였고, 연령이 생선 소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0.141). 연령이 건강몰입을 통하여 생선 섭취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t값이 2.23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연령이 건강몰입을 통하여 편의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t값이 1.05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이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을 통하여 생선 소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t값이 3.24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리고 건강몰입이 생선 섭취태도와 편의성을 통하여 생선

소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t값이 1.7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성개념들 간 의사효과는 건강몰입이 생선 섭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건강몰입이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건강몰입이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생선 섭취태도가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편의성이 생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발생하였고, 건강몰입이 편의성에 미치는 음(-)의 의사효과(-0.0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성개념들 간 총효과들과 공변량효과들 중에서 생선 섭취태도가 생선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와 공변량효과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0.349, 0.394), 연령이 생선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와 공변량효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각각 0.072, 0.072). 따라서 태도와 생선 소비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고, 연령과 생선 소비의 상관관계가 가장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Standardized total effects

Path	Covariate	Total	Direct	Indirect	Spurious
Attitude←Age	0.107	0.107	0.043	0.064(2.236)*	0
Involvement←Age	0.244	0.244	0.244	0	0
Convenience←Age	-0.221	-0.221	-0.242	0.021(1.053)	0
Consumption←Age	0.072	0.072	-0.069	0.141(3.249)*	0
Attitude←Involvement	0.272	0.261	0.261	0	0.011
Convenience←Involvement	0.027	0.086	0.086	0	-0.059
Consumption←Attitude	0.394	0.349	0.349	0	0.045
Consumption←Involvement	0.261	0.259	0.190	0.069(1.701)	0.002
Consumption←Convenience	-0.242	-0.259	-0.259	0	0.017

* p<0.05. () t value.

IV. 결론

본 연구는 연령이 생선소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 편의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령이 생선소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크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인요인분석 결과, 평균분산 추출값, 혼합신뢰도와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수정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구성개념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은 건강몰입과 편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몰입은 생선 섭취태도와 생선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선 섭취태도와 편의성은 생선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몰입은 연령과 생선 섭취태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고, 생선 섭취태도, 건강몰입과 편의성은 연령과 생선 소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생선 소비에 연령과 같은 외부 변수와 태도, 몰입과 편의성 등의 심리적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음식 소비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령과 심리적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자들과 마케터들에게 연령과 같은 외부변수, 심리적 변수와 행동적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마케터들로 하여금 상품개발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의 마케팅 전략 구사를 위한 관리적 문제점과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연령, 심리적 변수와 행동 변수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변수들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을 전남지역 주민들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음식을 생선 음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부변수를 교육수준, 소득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변수들로 대체하거나 확대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 변수들과 소비행동 간의 매개변수들로 음식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규범, 지식, 이용가능성, 재원 등의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포함시켜 이들의 인과관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Furst T, Connors M, Bisogni CA, Sobal J, Falk W. 1996.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 247-266
- Gempesaw CM, Bacon JR, Wessels, CR, Manalo A. 1995. Consumer perceptions of aquaculture produc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e Economics*, 77: 1306-1312
- Hearty AP, McCarthy SN, Kearney JM, Gibney MJ. 2007.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healthy eating and dietary behaviour,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Appetite*, 48: 1-11
- Honkanen P, Olsen SO, Verplanken B. 2005. Intention to consume seafood-the importance of habit. *Appetite*, 45: 161-168
- Kearney M, Kelly A, Gibney MJ. 1998. Attitudes toward and beliefs about nutrition and health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30(3): 139-148
- Kinnucan HW, Nelson RG, Hiariey J. 1993. U.S. preferences for fish and seafood: an evoked set analysis. *Marine Resource Economics*, 8: 273-291
- Juhl HJ, Poulsen CS.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consumer involvement in fish as a product group. *Appetite*, 34: 261-267
- Leek S, Maddock S, Foxall G. 200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British Food Journal*, 102: 18-39
- Letarte A, Dube L, Troche V. 199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ffective and cognitive origins of food likes and dislikes. *Appetite*, 28: 115-129
- Mahon D, Cowan C, McCarthy M. 2006. The role of attitudes,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and habit in the consumption of ready meals and takeaways in Great Britai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7: 474-481
- Myrland O, Trondsen T, Johnston RS, Lund E. 2000. Determinants of seafood consumption in Norway: lifestyle, revealed preferences, and barriers to consump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1: 169-188
- Nu CT, MacLeod P, Barthelemy J. 1996.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adolescents' food habits and preference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7: 251-262
- Olsen SO. 2001. Consumer involvement in seafood as family meals in Norway: an application of the expectancy-value approach. *Appetite*, 36: 173-186
- Olsen SO. 200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afood consumption: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4: 199-209
- Rai A, Lang SS, Welker RB. 2002. Assessing the validity of IS success models: an empirical test and theoretical analysi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3(1): 50-69
- Rappoport L, Peters G, Downey R, McCann, T, Huff-Corzine L (1993)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food cognition. *Appetite*, 20: 33-52
- Roininen K, Lahteenmaki L, Tuorila H. 1999. Quantific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 health and hedonic characteristics of foods. *Appetite*, 33: 71-88
- Stephoe A, Pollard TM, Wardle J. 199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25: 267-284
- Trondsen T, Scholderer J, Lund E, Eggen AE. 2003. Perceived barriers to consumption of fish among Norwegian women. *Appetite*, 41: 301-314
- Verbeke W, Vermeir I, Brunso K. 2007. Consumer evaluation of fish quality as basis for fish market segmenta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 651-661
- Verbeke W, Vackier I. 2005. Individu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44: 67-82
- Yuksel A, Yuksel F. 2007. Shopping risk perceptions: Effects on tourists' emotions, satisfaction and expressed loyalty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 703-713